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현황과 과제

박종수

대구가톨릭대학교 · 강사

- I. 머리말
- II. 사회복지사업의 이념
- III. 사회복지사업의 현황
- IV. 사회복지사업의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약 77%가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사라는 통계¹⁾는 사회복지와 종교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종교단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과 신앙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²⁾을 실천한다. 그 사회적 실천이 선교·포교·교화·포덕 등의 지향성을 지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기초실태보고서』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p.16.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접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인류애의 보편적 관점에서 실천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영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2011)에 의하면,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법인 현황은 500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³⁾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교시설까지 합한다면,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06년에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자료에 의하면, 2003년 말 기준 종교관련 사회복지시설은 2,162개소로 우리나라 전체 복지시설의 53.4%로 조사된 바 있다.⁴⁾

본 연구자가 종교와 복지 영역에서 주목한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분야이다. 한국 사회의 3대 종교단체들이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원불교와 대순진리회 등의 신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사실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그들의 여타 사회적 실천들도 왜곡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종교사회복지의 현황을 좀 더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의 과제를 통해서 종교사회복지의 과제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은 종교와 연관시킬 때 보다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큰 주제인 ‘종교사회복지’에 대해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종교사회복지포럼에서부터 이혜숙, 노길명, 윤용복, 고병철, 전명수, 오세영 그리고 안신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종교 사회복지의 역사, 현황, 성격, 그리고 쟁점과 과제, 종교학적 평가 등 종교 사회복지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11』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pp.139-168.

4) 고경환,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15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pp.66-67.

에 관하여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선행 연구에서 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동향을 『불교학연구』, 『선교신학』, 『신학사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신종교연구』, 『종교연구』, 『사회복지정책』 등 22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종교사회복지’, ‘종교와 사회복지’, ‘종교복지’, ‘종교와 복지’, ‘원불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 ‘천주교사회복지’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분석한 논문이 주목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종교사회복지학에 대한 연구는 1983년을 기점으로 비롯되었으며,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기독교(개신교)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종교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에 따르면,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 대순진리회 내부에서의 연구가 몇 편 있는 형편이다.⁷⁾ 그리고 이 연구들은 노인복지에 집중하여 현황과 과제를 살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랐다.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두 편의 선행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 이념을 토대로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

5)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이혜숙, 『종교사회복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노길명, 「종교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 사회』 1 (2010), pp.191-215; 윤용복,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와 종교」, 강돈구 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9), pp.91-121;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 (2011), pp.244-284; 진명수, 「종교와 사회복지의 접점-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활동의 실제」, 『종교연구』 68 (2012), pp.253-280; 오세영, 「한국종교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5 (2013), pp.399-425; 안신, 「종교복지시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켄다와 테레조테 모델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3 (2013), pp.329-355 등.

6) 오세영, 앞의 글, pp.410-422.

7) 이경원·최경익,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 고병철 외, 『한국종교교단연구-사회복지편』 VI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pp.91-111; 이경원,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노인요양시설 유닛케어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5 (2011), pp.231-251; 정지윤, 「대순진리회 중요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제4회 대진대학교 대학원 학술대회 자료집』 (포천: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0), pp.45-68; 정지윤, 「대순사상의 사회적 이념과 그 실천」, 『신종교연구』 29 (2013), pp.125-154.

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두 논문은 사회복지 현황의 기술에서 차이가 있다. 이경원·최경익의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라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에 대해 정지윤의 논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의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정지윤의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역사적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실천을 서술하고 있어서, 대순진리회의 역사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경원·최경익은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 이념을 주로 『전경』의 내용을 근거하여 살피면서, 그 이념의 구현을 1969년 창설된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맞춰 고찰하였다. 반면, 정지윤은 『전경』의 내용과 함께 증산·정산·우당 등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을 고찰하고 있다.

본고는 두 편의 선행 연구들과 연구 배경이 맞닿아 있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르다. 우선, 본고는 내부자의 시선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외부자의 시선에서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연구의 목적이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을 좀 더 객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고는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을 종교사회복지라는 큰 틀과 연계하여 살핀다는 점에서 두 편의 선행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현 단계의 대순진리회 사회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의 향후 과제가 도출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의 실태와 과제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실태와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II. 사회복지사업 이념

종교사회복지의 개념을 “해당사업의 동기·목적·세부내용 등 어딘가에 종교성을 표방하는 사업주체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회복지 지향의 제반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⁸⁾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세부 내용 등에서 종교적 이념을 표방하여, 대순진리회 종단, 방면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회복지 지향의 제반 실천으로 정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는 도덕적 행위에 관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 도덕적 의무를 요구한다. 물론 도덕적 의무는 종교적 실천과 의무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교적 의무는 의무감과 기쁨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도 한다.⁹⁾ 예컨대, 불교의 자비정신은 구빈정책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으며, 사찰은 민간사회복지의 중요한 전달체계로 기능하였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사랑의 정신이 구빈사업의 바탕이 되었으며, 신앙공동체가 중요한 전달체계가 되었다.¹⁰⁾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해원사상과 보은사상은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실천·운영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인존(人尊)’으로 표현한다. 『전경』의 교법 2장 56절에 따르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고 한다. 인존은 인본(人本)과 인권(人權), 인간중심 등의 개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대순진리회의 독특한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요컨대, 이 세상은 천지와 신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은 천지와 신명의 관계에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천지와 신명이 하나의 인간 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다시 말해, 인간은 천지와 신명과 더불어 우주의 한 축이므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8) 이혜숙, 『종교사회복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p.301.

9) 니니안 스마트, 앞의 책, p.159.

10) 노길명, 앞의 글, pp.198-203.

11) 이경원·최경익, 앞의 글, pp.233-235.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해원상생(解冤相生)’과 ‘보은상생(報恩相生)’이며, 이 이념은 복지재단의 운영원리이기도 하다. 해원은 ‘원(冤)을 푼다[解]’는 뜻으로,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욕구를 개인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¹²⁾ 대순진리회 복지재단은 해원상생의 이념을 복지재단의 운영원리로 적용하여, “돌봄을 통해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상생원리를 실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을 최대한 보장(1인 1실의 유니트 케어 시스템 운영)하고, 과거 생활로부터 단절과 파괴가 아닌 계속성을 유지하고, 자립과 회복을 지향하며, 가족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¹³⁾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에 종교윤리가 적용될 때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회복지대상자(Client)를 선교·포교(포덕)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사회복지대상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고착화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대상자가 비종교인 또는 타종교인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종교윤리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원리로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들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실천적 지침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국한된 내용들이다. 예컨대, “돌봄을 통해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1)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을 최대한 보장(1인 1실의 유니트 케어 시스템 운영) 2)과거 생활로부터 단절·파괴가 아닌 계속성 유지(친근한 생활공간 조성)과 가족과 같은 분위기, 가족의 면회 및 소통을 최대한 보장, 힐링을 위한 실내·외 환경 조성)” 등의 실천지침은 사회복지사업 전체에 적용되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원리를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통합적인 실천지침과 각 사회복지사업에 걸맞은 실천지침 등이 요청되고 있다.

12) 같은 글, p.101.

13)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 현황소개 자료.

Ⅲ. 사회복지사업 현황

대순진리회는 신앙과 수행의 목적을 “개인의 구원과 안녕이 아니라, 공익 자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1969년 창설된 이래 사회복지와 민생구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고 한다.¹⁴⁾ 무극도와 태극도를 창도한 정산 조철제(鼎山 趙哲濟, 1895-1958)로부터 대순진리회의 역사가 비롯되었다고 말한다면, 대순진리회는 1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¹⁵⁾ 대순진리회의 역사는 원불교와 비교할 때 비슷한 시기에 태동했다는 점에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다.

첫째, 원불교와 대순진리회의 3대 사업에는 자선사업 또는 구호자선, 사회복지사업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원불교의 경우, 소태산은 “우리의 사업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 가지이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¹⁶⁾고 하였고, 1974년 종교재단 등록 시 교화·교육·자선 3대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법인정관에 명시하고 있다.¹⁷⁾ 대순진리회는 “구호자선,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을 종단 기본 사업으로 삼고 있다.¹⁸⁾ 두 종교의 3대 사업에서 자선과 교육 분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원불교에서는 교화를, 대순진리회에서는 사회복지를 강조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두 종교의 3대 사업을 비교할 때, 원불교는 교화의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면서 사회복지를 이 의미에 담아내고 있으며, 대순진리회는 사회복지를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3대 사업의 구분이 원불교보다 좀 더 분명

14) 윤은도, 「대순진리회의 공익자선활동」,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중국영산공익자선촉진회 발표문, 2014.5.17.

15) 정지윤, 「대순사상의 사회적 이념과 그 실천」, 『신종교연구』 29 (2013), pp.126-127.

16) 『대종경』, 부록품 15장.

17) 김석남, 「원불교의 사회복지 실천과제 연구」, 『보건과 복지』 15 (2013), p.170.

1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종단의 사업’.

하게 사회복지 분야를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래의 <표 1>은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3대 중요사업의 지출현황이다.

<표 1>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비 현황(1975~2013년, 단위: 원)

년도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합계
1975~2005	5,694,514,751	362,992,258,740	182,108,949,873	550,795,723,364
2006	210,214,000	1,913,454,980	4,252,903,210	6,376,572,190
2007	214,748,000	8,988,515,716	3,639,955,485	12,843,219,201
2008	319,524,000	16,042,970,890	7,849,257,480	24,211,752,370
2009	869,006,245	14,123,598,770	5,040,797,685	20,033,402,700
2010	230,882,000	2,608,358,000	14,680,494,203	17,519,734,203
2011	210,706,000	2,488,634,850	7,124,314,450	9,823,655,300
2012	203,380,000	11,200,803,294	6,687,178,460	18,091,361,754
2013	221,282,000	4,405,266,146	3,843,058,380	8,469,606,526
합 계	8,174,256,996	424,763,861,386	235,226,909,226	668,165,027,608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종교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대순진리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방면에서 걷는 성금의 6할을 여주본부도장에 보내게 되어있으며, 여주본부도장은 이 성금의 약 60~70%를 3대 중요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¹⁹⁾ 위의 <표 1>은 1975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3대 중요사업비 집행내역이다. 통계에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 5,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되었지만, 이 통계에는 대진대학교 건립비용(부지 매입 포함)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이보다 1,000억 원 이상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요컨대, 2013년까지 대순진리회가 지출한 구

19) 천주교의 경우, 본당 예산의 10%를 사회복지비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전국의 본당이 1,000여 개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가 천주교의 사회복지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선우, 「민간복지의 현황과 과제」, 『비관사회정책』 6 (1999), p.33.

호자선·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에 대한 경비는 6680억 원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종단 3대 중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비 세부 내용(단위: 원)

사업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구호자선	불우이웃돕기	210,606,000	203,080,000	220,132,000
	적십자회비	100,000	300,000	1,150,000
	대진국제자원봉사단 활동			40,500,000
	소계	210,706,000	203,380,000	261,782,000
사회복지	의료구호(고성제생병원)	1,205,458,930	1,095,200,000	1,120,660,200
	사회복지법인 지원	1,072,300,000	1,419,450,000	3,074,314,830
	청소년 수련원 건립		8,489,840,390	
	청소년 캠프	158,791,500	160,633,114	143,215,190
	대학생 수련회	39,912,420	19,539,790	4,967,926
	행사후원	12,172,000	16,140,000	21,608,000
	소계	2,488,634,850	11,200,803,294	4,364,766,146
교육사업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산하고 및 노인자녀 장학금	1,576,816,040	1,412,244,480	1,102,505,010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외 지원금	1,854,998,410	2,224,193,120	1,886,943,370
	대의 장학금	2,750,000	17,750,000	54,000,000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및 공사비	3,689,750,000	3,032,990,860	799,610,000
	소계	7,124,314,450	6,687,178,460	3,843,058,380
합 계		9,823,655,300	18,091,361,754	8,469,606,526

출처: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종교문화연구소

<표 2>에 의하면,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들은 의료복지 분야와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 분야), 그리고 청소년복지 분야로 구분되어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의료복지와 노인복지 분야에 집중되었던 사업들

이 2012년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면서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도 하드웨어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대순청소년 캠프, 동그라미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 사업별 육성 방향

사업 종류	대상	청소년육성 방향	
		전인교육	교리교육
대순청소년 캠프	초등 4학년 ~ 고등 3학년	능동적 청소년 (자아 정체감 형성)	기본교리 전달, 가족애 (상생과 훈회 1~5를 반복)
동그라미	10대 초·중반	문학·교양	기본교리 전달 (『전경』을 중심으로)
대학생활동	대학생, 대학원생	공동체 의식 이타주의, 기본 소양	교리 이해 (상제관, 종통을 중심으로)

둘째, 원불교와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분야가 ‘노인복지(시설)’라는 점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된다. 원불교의 경우, 76개의 시설 중 47.4%인 36개 시설이 노인 관련 시설이라고 한다.²⁰⁾ 현재 대순진리회도 복지재단의 시설은 2012년에 개관한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면, 요양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다.²¹⁾ 다음의 <표 4>는 최근 4년간 대진요양시설의 세입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보조금, 발전전입금, 사업수입, 그리고 후원금,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20) 김석남, 앞의 글, p.179.

21) 현재 대순진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복지법인으로 생활시설, 병원 시설, 이용시설, 직원·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진(노인)요양시설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0개와 9개의 유닛을 구비하여 88명, 94명 등 총 182명이 이용가능하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로서 대진노인복지센터는 각각 1개와 3개의 유닛을 구비하여 17명, 29명 등 총 46명이 이용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진단·치료·요양·입원기관으로서 대진요양병원은 120개의 병상을 구비하여, 종합건강검진 및 응급후송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직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 레스파이트(보호자 가족 등 숙박), 체력단련실과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대순진리회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dsswf.com) 참조.(2014. 5.30. 검색)

<표 4> 대진요양시설(舊대순진리회요양시설) 년도별 세입현황 (2014.05.28. 단위: 원)

구분	합계	정부보조금 수입	교구- 본당- 외국원조	사업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	기타
2010년	1,690,677,787	4,483,750		656,213,120	18,038,400	1,005,000,000	6,942,517
	100%	0.3%	0.0%	38.8%	1.1%	59.4%	0.4%
2011년	2,311,577,559	9,226,360		1,630,961,080	6,970,000	660,000,000	4,420,119
	100%	0.4%	0.0%	70.6%	0.3%	28.6%	0.2%
2012년	2,699,586,109	16,787,390		2,146,199,310	4,791,100	519,588,600	12,219,709
	100%	0.6%	0.0%	79.5%	0.2%	19.2%	0.5%
2013년	3,415,898,869	21,644,440		2,758,786,150	100,629,000	522,000,000	12,839,279
	100%	0.6%	0.0%	80.8%	2.9%	15.3%	0.4%
2014년 1월 ~ 4월까지	1,242,152,764	7,472,320		871,993,187	1,340,000	348,000,000	13,347,257
	100%	0.6%	0.0%	70.2%	0.1%	28.0%	1.1%

출처: 대순진리회 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총세입 규모는 2001년 약 4,575억 원, 2002년 약 5,165억 원, 그리고 2003년에 약 5,565억 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시설 당 평균세입이 약 3.0~3.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원의 구성을 보면, 정부지원금이 약 57%, 이용자부담금이 약 16%.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과 잡수익 등이 약 16%, 그리고 종교계 지원금이 약 10%로 파악되었다. 종교계의 지원금이 복지시설의 이용자부담금보다 낮은 이유로 종단의 재정능력 또는 복지활동의 지원의지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²²⁾

<표 4>의 대진요양시설 연도별 수입현황에 따르면, 대순진리회의 정부보조금 의존 비율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종교와 양적인 비교는 현재 불가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질적인 비교를 할 때 정부보조금의 비율이 적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 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1)중앙정부

22) 고경환, 앞의 글, pp.68-69.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종교단체가 위탁운영하면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것 2)종교단체들이 설립·운영해오던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3)종교계가 참여한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²³⁾ 그런데 정부의 사회복지 보조금은 국가의 재정 일부를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돈’을 무기로 종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진요양시설의 수입 예산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보조금의 비율이 적다는 점은 정부의 지원금이 적다는 의미보다는 대진요양시설의 수입구조가 후원과 사업수입비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수입비가 법인전입금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높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사업수입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0년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수입비에 전체 예산의 약 2/3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사업수입비는 대체로 이용자부담금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용자부담금이 다른 시설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대진요양시설의 양적 규모가 다른 종교의 시설과 비교할 때 적은 탓으로 보인다.

IV. 사회복지사업 과제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의 과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몇 가지 지적되었다. 요컨대, “지역이나 분야, 기능적 영역 등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체성(시스템)을 구축하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공

23) 강인철, 「정부보조금과 종교: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종교통제방식?」, 『종교문화연구』 5 (2003), pp.77-87.

간접·심리적 편의성을 확보하기, 다양한 복지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을 갖추기,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²⁴⁾와 “대순진리회의 3대 사업 중 구호자선과 사회복지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UN NGO의 가입을 통해서 조직을 국제화하기,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의 각성된 의식전환이 필요”²⁵⁾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종교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노길명의 경우, 한국종교계가 전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고²⁶⁾, 전명수는 종교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약자로 만든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²⁷⁾ 그리고 고병철은 종교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개념의 성찰과 정립이 필요하며, 종교활동(선교)과 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성찰과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 개별 종교들이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장애요인들을 성찰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상호 연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²⁸⁾

본고는 앞서 살핀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현황을 바탕으로,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과제를 참고하여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의 과제를 운영시스템과 하드웨어 두 가지 측면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24) 이경원·최경익, 앞의 책, p.109.

25) 정지윤, 앞의 글, pp.147-150.

26) 노길명, 앞의 글, pp.204-209. “첫째, 사회복지의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교리(Social doctrine)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 둘째, 종교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원리가 분명해야 함. 셋째, 종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활동은 국가의 공공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보완적이며 보충적 성격을 지녀야 함. 넷째, 종교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집행, 그리고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다섯째, 사회복지단체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 여섯째, 종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의 영역은 다른 사회복지기관과는 차별성을 지녀야 함. 일곱째, 영적 복지활동(spiritual welfare)의 강화.”

27) 전명수, 앞의 글, pp.237-239.

28) 고병철, 앞의 글, pp.273-276.

1. 운영시스템 측면에서의 과제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안될 수 있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한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각 방면의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다.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사업이 본부도장과 각 방면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종단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할 수도 없다. 앞서 살핀 <표 1>과 <표 2>의 통계에는 각 방면의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종단 전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달체계와 관리가 요구된다. 요컨대, 노길명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타적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와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지적 자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전달체계”가 필요한데, 대순진리회는 전달체계가 다른 두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현재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의 요양병원은 도인과 일반인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병원이라는 보다 특수한 업무에 따른 자체 도인의 인력 수급이 제한적이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센터의 경우는 도인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전달체계의 문제제기는 도인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조직에서 벗어나 일반인의 채용 비율을 높여서 보다 개방적인 운영조직을 만들 필요성도 요구한다. 그렇게 될 때 포교(포덕) 지향적이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잘 실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사업과 포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의 사회복지사업이 성과를 낸 것은 직접적인 선교의 방식보다는 사회복지활동이 (종교)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끌 때임을 상기한다면,²⁹⁾ 보다 개방적인

운영조직이 요청된다.

셋째,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운영원리를 일반인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슬로건과 같은 2차적 실천원리 또는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는 종교적 실천운동으로서 ‘내 탓이오’라는 슬로건으로 종교적 이념을 좀 더 실천적으로 사회운동으로 연결시킨 사례가 있다. 대순진리회도 조금은 딱딱한 ‘해원상생’ 또는 ‘보은상생’의 종교적 이념보다 쉽게 접근하면서도 사회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슬로건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순진리회의 다섯 가지 훈회(訓誨)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척을 짓지 말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남을 잘 되게 하라.”와 같은 문구를 잘 활용해서 사회운동으로 연결한다면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2.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과제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에 따른 하드웨어는 교육기관인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인 병원, 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인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기준으로 하면 학교는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과 청소년수련원이 하드웨어로서 파악된다. 하드웨어에는 사회복지분야도 포함되는데, 이에 따른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분야는 현재 다각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유형으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행려자/부랑인복지, 의료/정신의료복지, 결핵복지, 나환우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99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³⁰⁾

29) 전명수, 앞의 글, pp.300-304.

30) 이선우, 「민간복지의 현황과 과제」, 『비판사회정책』 6 (1999), p.26.

개신교는 아동복지(36.9%) - 지역복지(26.7%) - 장애인복지(11.3%) - 노인복지(10.2%) - 여성복지(5.6%) - 의료복지(3.1%) - 청소년복지(2.6%) 등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천주교는 장애인복지(22.6%) - 아동복지(17.8%) - 노인복지(14.8%) - 청소년복지(11.1%) - 행려자/부랑인복지(9.1%) - 나환우복지(5.2%) - 지역복지(4.1%) - 의료복지(3.9%) - 여성복지(3.4%) - 결핵복지(1.2%) 등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불교의 경우는 아동복지(28.4%) - 노인복지(13.1%) - 지역복지(11.9%) - 청소년복지(11.6%) - 장애인복지(9.7%) - 행려자/부랑인복지(1.1%) 등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앞선 <표 2>와 <표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는 앞으로 사회복지활동의 영역을 좀 더 다각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재단 산하에 대순진리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위주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적 성격이 강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주시가 되었던 다른 지역이 되었던, 현재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위치한 곳보다는 시내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다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여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종교 사회복지사업의 실천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대상자를 노인을 비롯해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종교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화합과 일치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종교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³¹⁾ 사회복지사업은 이러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애의 보편적 실천과 종교적 이념과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될 때 종교 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이 드러나며, 종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 등을 논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1969년 창설된 이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종단의 3대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교 또는 포덕의 전제 여부는 종교윤리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대순진리회는 인류애의 측면과 사회적 공공복리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딜레마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과연 종교 사회복지와 다른 민간 사회복지와 차별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복지’와 ‘종교 사회복지’가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원리와 실천방법, 그리고 그 내용 등이 달라야 한다.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재단은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및 실천원리를 좀 더 치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의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타종교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들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좀 더 세심한 성찰이 필요하다.³²⁾

31) 종교사회복지포럼 편,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p.17.

32) 이에 대해서 노길명은 캔다와 퍼만의 글을 인용하여 영적 복지활동(spiritual welfare)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인간에게 영성은 삶의 궁극적 목표와 의미, 그리고 방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러한 영적 복지활동은 종교 사회복지활동의 독특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다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 과 이주노동자,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들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종단차원의 문제제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 참여 등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의 실태와 과제 등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본고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한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들의 영성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활용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노길명, 앞의 글, pp.209-210; 에드워드 캔다·래울라 디러드 퍼만, 『종교사회복지 실천론-사회복지실천에서 일할의 다양성』, 박승희·이혁구 외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강돈구, 「종교 상호 공존의 논의, 그 이후?」, 『종교연구』 34, 2004.
- _____,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 강인철, 「정부보조금과 종교: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종교통제방식?」, 『종교문화연구』 5, 한신인문학연구소, 2003.
-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 고병철 외, 『한국종교단연구-사회복지 편』 VI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 2011.
- 고수현, 「불교의 사회복지 사상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4-2, 한국복지행정학회, 2004.
- 권영임,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종교학보』 4, 2007.
- 김미숙 외,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김인숙, 「종교단체 사회복지사업의 평가-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6, 가톨릭대 사회복지연구소, 2001.
-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정신개벽론 연구-천도교와 원불교 정신개벽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5, 2011.
- 노길명, 「음양합덕을 통해 본 사회의 구조와 통합의 원리」, 『대순진리학술논총』 2, 2008.
- _____,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와 사회변혁」, 『대순진리학술논총』 3, 2008.
- 대순진리회 홍보팀 편 『대순진리회(홍보책자)』,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2006.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11』,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_____, 『바람직한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징」, 『종교연구』 70, 2013.
- 박석돈, 「종교가 사회복지사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의 토착화를 위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988.
- 박종수, 「종교단체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불교, 개신교, 천주교 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63, 2011.
- 박형진, 「'엠마우스'를 통해 본 천주교의 장애인복지운동」, 『종교와 사회』 1-1, 2010.
- 배영기, 「상생윤리의 체계론적 연구」, 『윤리연구』 51-3, 2002.
- 서 윤, 「원불교와 사회복지」, 『종교학보』 4, 2007.
- 안 신, 「종교복지실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종교연구』 73, 2013.
- 에드워드 캔다·레올라 디러드 퍼만, 『종교사회복지실천론』, 박승희 외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 오세영, 「원불교사회복지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11.
- 오세영, 「한국종교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5, 2013.
- 윤기봉, 「대순사상의 도통관에 있어서 실천수행의 문제」, 『종교교육학연구』 39, 2012.
- 윤승용, 「대순진리의 신인조화, 신앙과 실천」,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2009.
- 윤용복,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와 종교」, 『종교연구』 69, 2012.
-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34, 2010.
- 이경원,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노인요양시설 유닛케어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5, 2011.
- _____,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 이경원·최경익,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 고병철 외, 『한국종교교단

- 연구-사회복지 편』 VI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이선우, 「민간복지의 현황과 과제-가톨릭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999.
- 이재호, 「대순진리의 인간개조에 담겨있는 지상신선실현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14, 2002.
- 전광현,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활동과 과제」, 『종교학보』 4, 한국종교간대화학회, 2007.
- 전명수, 「종교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64, 2011.
- 정대진, 「대순진리회와 대순종지」,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 정지윤, 「대순사상의 사회적 이념과 그 실천」, 『신종교연구』 29, 2013.
- 조태용, 「대순진리회의 종지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6, 1998.
- , 「대순진리회의 4강령에 관한 연구(안심·안신)」, 『대순사상논총』 7, 1999.
- 종교사회복지포럼,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03.
-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9, 2012.
- 최동희·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 황선명, 「한국 종교사에 있어서 대순진리 종교사상의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 종단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www.idaesoon.or.kr
대순진리회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www.dsswf.com

▪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Task of Daesoonjinrihoe's Social Welfare

Jong-Soo Park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Religious organizations execute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on the basis of their religious ideology and faith. Their practice vividly aim at mission, propagation, edification, and spreading, but also is practised as a way of philanthropy, an universal value. Daesoonjinrihoe's social welfare program can be understood in this respect. This paper investigates on which idea Daesoonjinrihoe's social welfare program takes its basis, and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the social welfare program. Daesoonjinrihoe runs their social welfare program on the idea of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Haewonsangsaeng: 解冤相生]' and 'Boeunsangsaeng(報恩相生)'. Their program is concentrated on medical welfare, welfare for elderly people, and youth welfare. It is noteworthy that Daesoonjinrihoe's welfare program is not subsidized by government as much as those of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This paper looks into the tasks for Daesoonjinrihoe's social welfare program in terms of operational system and hardware,

and suggests that we need to show interest in multicultural welfare systems and support it as Korean society is becoming a more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 : Religion social welfare, Daesoonjinrihoe(大巡眞理會), Daesoonjinrihoe's Social welfar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解冤相生), Social Welfare Foundation managed by Daesoonjinrihoe in Yeosu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12월 29일